

윤석열 정권의 파행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비판과 대안적 방향

-글로벌대학30과 RISE를 중심으로

송주명

(한신대 교수, 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)

1. 2023/24 파행적 고등교육정책의 전면적 전개

1. 2022말~23년 대학설립운영규정 '대폭' 개정: 규제철폐

- 서울권역 중심의 대학서열화 + 대학공공성의 위기
- 학령인구감소 전제로 한 윤정권의 시장주의 '대학개혁' 방향
- 서울 중심 서열체계 강화, 지역대학 위기, 대대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

2. 지역대학위기에 대한 대응책?: 글로벌30과 RISE

(1) 글로벌30

- 지역대학의 글로벌한 '경쟁력' 프로젝트? 엄격한 구조조정과 특화
- 30개대학(프로젝트), 5년간 1000억지원
- 현재 2년차 20개 대학(프로젝트) 지정

(2) RISE

- 지역대발전 지역협력모델, 지역차원 지원거버넌스 문제의식
- 23~24년 '시범사업' (7개) → 25년 수도권 포함 17개 광역자치체 모두
- 기존 재정지원예산 통합 + 신규예산 등 2조 + @
- 광역시도지사로의 예산 1/2 분배(?)

2. 글로컬 30 사업 1년(2년차)의 현실, 본질적 문제점들

1. 지역대학의 글로벌한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전략의 부재: '경쟁' 지상주의

-전국적 균형의 부재, 전략적 조화의 부재

-정치적 기준 작동 의문: 지역편중, 거점국립대 배제지역도

2. 지나친 구조조정과 특화: 글로벌한 대학의 종합적 학문생태계의 파괴

-기초학문 대폭 축소, 첨단/특화학과의 기형적 성장→ 대학의 지속 불가능성

3. 예산의 불분명성 + 사업비예산 뿌리기: 교수충원 등 전략적 대학발전의 기여 부재

-예산의 불확실성: 1년차 평균 41억 지원(Cf. 200억) 예산의 하반기 편중지원(사업진행의 차질 불가피) 등

-예산의 소재? 독립 or RISE? 그리고 3년후 예산 지속될 것인가? 현장 구성원 무책임성

4. 개별대학 혹은 소수 통합대학군의 고립된 지원

-지역대학 전반의 경쟁력 확충에 대한 확산효과(spill-over effect) 부재

-전체 지역발전 전략과의 본질적 연계의 결여

5. 부유 사립지원 편중, 사립대 공공적 발전 저해

-가진 사립 '특혜' 몰아주기, 지역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개혁에 대한 확산효과 결여

6. 연합/통합 프로젝트의 합의 미성숙(동상이몽): 전략(비전, 목표, 과정 등) 공통인식 결여

3. RISE: 25년 본격시행, '착시' 속의 우울한 현실

1. 교육부의 예산배분, 대학권한 이양 약속에 급조되는 '지역전략'

-단기적, 단전적 시야의 '교육형' 지역개발 그림(전국, 지역레벨이 교차되는 거시적-전략적 시야 부재)

2.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소통 및 지속발전 모델에 대한 이해 결여

-대학과 지역 관계설정의 커다란 변경이 요구되지만, 직접적인 산업요구 + 예산 사업 접근

-매우 실용적이고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과 지역발전 간의 다층적 구조 물이해

3. 한편으로 변화된 재정지원 예산뿌리기 방식일 뿐...

-종래 예산통합, 지역관련 교육예산의 억지스러운 통합(2조 + @)과 재정지원 배분필요

4. 글로컬 30예산 포함 논란: 2년차 약4000억? 글로컬대의 실질적 광역시도립화?

5. 수도권대 재정지원과 지역대학 지원예산의 위축 가능성

6. 정치적 예산배분, 사립대학의 '정치적' 구조조정 가능성

-시도지사의 정치적 예산분배(비시장주의), 정치적 기준의 사립대 구조조정, 혹은 비리 사립과의 정치유착?

7. 거버넌스 취약성과 교육관료의 지배력: 전국 RISE위원회와 지역 위원회

-광역시도의 경험, 지식 등 부족, 퇴직 교육관료의 재취업, 교육부의 관료적 통제망

4. 대안을 향해 (1) : GCU 13 + RSSE

1. 글로컬 30이 아니라 광역시도별 ‘GCU(글로벌지역대학연합)’ 13으로 대학균형발전
 - 비전략적이고 개별적인 글로컬대학이 아니라 광역시도별 핵심적 국립-사립대학 대학연합을 지원
 - Global Confederative Universities(GCUs): 다중심적(多中心的) 대학의 종합적 균형발전
 - 사업예산이 아니라 세계적 GCUs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일반 고등교육예산의 편성
2. 무원칙한 RISE가 아니라 국가전략으로서 ‘RSSE’ 를
 - 국가균형발전 전략 + 지역고등교육 국가전략
 - 지역상생 대학지원 생태계(RSSE: Regional Synergic Supporting Ecosystem for Universities)
3. 국가균형발전위 + 국가고등교육위원회의 공동의 국가전략
4. 안정적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긴급요
 - 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상향
 - 서울권역 주요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에 우선 배분
 -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점진적 확대와 안정화가 필요 (OECD 평균 기준,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)
5. 혼란의 ‘Glocal 30 + RISE’ 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고등교육전략으로서 ‘GCU 13 + RSSE’ 가 필요하다!!

4. 대안을 향해 (2): GCU 13

1. 지역내 핵심대학 6-8개를 ‘대학연합’ 형성토록
 - 지역내 대학활동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성과확산 및 통합효과, 공공적 구조조정 지원
 - 초기에는 대학연합(Confederative U.s)→궁극적으로 연합대학(Federative U.s)
 - 광역자치체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, 교육/연구의 생태조건에 따라 단위는 재구성될 수 있음
2. 국립대 중추(3~4개)
 - 정원축소(수도권과 비례적 축소)
 - 거점국립대(기초+인문+첨단) + 지역국립대(기초+권역 특화, 권역 대학 통합 및 공공적 구조조정 지원)
3. 지역사립대(3~4개)
 - 정원축소, 전공 유지, 시민교육 기관화, 거버넌스 재구조화, 지역 사립대의 획기적 공공적 구조개혁 전제
 - 대학별 특화/경쟁력 강화, 거버넌스 및 재정면에서 공공적 허브역할 사립/전문대 3~4개 포함
4. 연합이란?
 - 공공적 구조개혁을 전제로, 대학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분업과 통합 노력
 - ‘대학연합운영위원회’ 로 통합되는 대학연합(GCU)→ ‘연합대학이사회’ 로 통합되는 연합대학(GFU)으로
5. 국가고등교육위원회 정책대상으로서 GCUs →지역내 성과확산
6. 국가경쟁력 고등교육투자(국가균형발전 + 고등교육 국가전략): 다중심적 GCUs 형성, 일반재정지원

4. 대안을 향해 (3): RSSE

1. 국가균형발전위 + 국가고등교육위의 전국적 협조, 조정의 면밀한 지역상생전략 수립

- 단순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 방식
- 지역별 산업(화) 특징, 지정/경학적 위상; 지역별 역사 문화자산 구조; 시민사회의 특수성 등 충분히 반영
- 다층적 지역발전 및 시민발전 전략, 중장기적 시야의 지속가능한 산업화 전략
- 지역 + 대학의 다층적 협력구조; 광역/기초 차원의 면밀한 대학지원체제
-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보: 참여주체의 합의제 원칙

2. 임무1: GCU 13의 지역별 발전 생태계 형성 및 지원

- 국가고등교육위원회 GCU 13전략 + 지역차원의 민주적 대학지원 거버넌스
- 지역 사립대의 공공적 구조개혁 지원
- GCU 13을 허브로 하는 대학발전 확산구조,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

3. 임무2: 지역별 GCUs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의 형성 및 실천

- 지역 정착 인재, 지역 교육구조의 발전 연계
- 지역 첨단 산업발전의 학문-기술적 핵으로서 대학→지역산업화의 자극, 안정적 일자리 확산
-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질적 업그레이드: 인생2라운드 전공, 평생직업교육, 평생교육, 민주시민교육

**Glocal/RISE의 파행을 중단시키고,
다중심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끌
GCU/RSSE로 나아갑시다.**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